

# 노동시장동향



이 의 규  
인적자원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1. 1990년 4/4분기 고용 동향

1999년 4/4분기의 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는 35,910천명으로 1998년 동기 대비 373천명(1.0%)이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1,972천명으로 1998년 동기 대비 461천명(2.1%)이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1998년 동기 대비 0%로 변화가 없다. 한편 가사, 통학 등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9년 4/4분기에는 13,938천명으로 전년동기보다 0.6%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취업자는 20,962천명으로 1998년 동기 대비 1,038명(5.2%)이 늘었으며, 실업자는 36.3%가 줄어 국내 경기가 상당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인 1,011천명에 달하며, 실업구조별로는 아직 청소년층(15~24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3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증가세를 주도하여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9년 1/4분기부터 실업자의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져, 1999년 1/4분기에 가장 높은 실업률인 8.4%에서부터 1999년 4/4분기에는 4.6%까지 낮아졌다.

## 가. 산업별 취업자수의 변화

농림어업에서 1999년도의 1/4분기부터 3/5분기까지 산업별 취업자수는 계속 감소하다 1999년 4/4분기에는 1998년 동기 대비 1.8%로 증가하였다.(표2. 참조). IMF 관리체제 이후 많은 노동력이 농업부문으로 이동하였으나, 다시 경기회복으로 인해 비농림어업 부문인 광공업, 개인사업·공공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둔화의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사업·공공서비스업은 1998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있으나 1/4분기(7.1%), 2/4분기(8.2%) 및 3/4분기(5.3%)보다는 매우 적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1998년 (-21.3%) 이래 1999년 2/4분기(-8.7%)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1999년 4/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0%로 상승세를 보여 건설업 취업인구의 감소현상이 회복추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의 경우 1999년 1/4분기에 6.6% 감소현상을 보이다 2/4분기(1.7%), 3/4분기(7.1%), 1998년 동기 대비에는 9.6%로 증가폭이 커졌다.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1998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였다.

## 나. 직업별 취업자수의 변화

1999년 4/4분기 직업별 취업자 수는

## 직업교육훈련방향 / 노동동향

(단위 : 천명, %)

	1998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5세 이상 인구	35,362( 1.5)	35,423( 1.5)	35,537( 1.4)	35,756(1.1)	35,616( 1.2)	35,715( 1.2)	35,820(1.1)	35,910(1.0)
경제활동인구	21,456(-1.0)	21,646(-1.0)	21,511(-1.0)	21,634(0.8)	20,854(-0.4)	21,797( 0.3)	21,914(1.2)	21,972(2.1)
경제활동참가율	60.7(-1.5)	61.1(-1.5)	60.5(-1.5)	60.5(-)	58.6(-0.9)	61.0(-0.5)	61.2(0.1)	61.2(-)
취업자수	19,994(-5.3)	20,249(-6.3)	19,924(-5.7)	20,281(1.4)	19,105(-3.3)	20,362( 0.6)	20,695(3.2)	20,962(5.2)
실업자수	1,461(162.8)	1,597(239.8)	1,587(182.9)	1,353(-7.4)	1,749(48.3)	1,435(-3.1)	1,220(-23.6)	1,011(-36.3)
실업률	6.8( 4.2)	7.4( 5.3)	7.4( 4.8)	6.3(-)	8.4( 2.8)	6.6(-0.2)	5.6(-1.8)	4.6(-)
비경제활동인구	13,906( 5.5)	13,777( 5.6)	14,026( 5.0)	14,131(1.6)	14,762( 3.6)	13,918( 2.5)	13,906(0.9)	13,938(-0.6)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매월 보도자료),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1월.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림어업	2,480(4.0)	2,699(3.0)	2,329(-0.1)	2,349(-5.3)	1,839(-12.1)	2,591(-7.5)	2,596(-3.8)	2,371(1.8)
광공업	3,919(-13.1)	3,792(-14.8)	3,885(-13.0)	4,026(2.7)	3,849(-6.6)	3,942(1.7)	4,061(7.1)	4,252(9.4)
- 제조업	3,898(-13.0)	3,772(-14.7)	3,863(-13.1)	4,006(2.8)	3,828(-6.6)	3,922(1.7)	4,039(7.1)	4,233(9.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3,595(-4.3)	13,557(-5.4)	13,710(-4.3)	13,906(2.3)	3,418(-0.9)	13,829(1.9)	14,037(3.5)	14,339(4.6)
- 건설업	1,578(-21.3)	1,530(-26.0)	1,485(-26.4)	1,476(-6.5)	1,479(-24.1)	1,479(-8.7)	1,561(2.0)	1,589(7.0)
- 도소매, 음식숙박업	5,571(-4.0)	5,538(-4.6)	5,594(-4.2)	5,274(2.7)	5,598(0.1)	5,632(1.2)	5,755(3.9)	5,913(5.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453(1.1)	4,483(0.9)	4,641( 4.2)	4,719(6.0)	4,608(7.1)	4,748(8.2)	4,720(5.3)	4,798(3.4)
- 전기·운수·창고·금융업	1,992(-0.4)	2,007(-0.5)	1,990(-1.6)	1,986(-0.3)	1,936(-2.1)	1,970(-1.3)	2,003(-0.2)	2,039(2.5)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1월.

1/4분기, 2/4분기 및 3/4분기에 비하면 대체로 증가세가 강화되었으며, 직업에 따라 감소추세의 완화 및 증가세의 강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은 감소 추세가 완화되었으며, 나머지 직업인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서비스·판매직,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더욱 증가폭이 커졌다(표 3 참조).

사무직은 1999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7%가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감소의 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 등이 사무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직은 1998년 매 분기별로 증가해 왔으나 1998년 4/4분기를 기점으로 하여 1999년 1/4분기 이래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여 왔다. 3/4 분기에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1999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735( 1.3)	3,733( 0.1)	3,782( 2.4)	3,863(3.4)	3,799( 2.8)	3,818( 2.5)	3,881(4.0)	3,957(4.6)
사무직	2,418(-6.0)	2,356(-7.9)	2,294(-9.9)	2,219(-8.2)	2,182(-15.2)	2,207(-9.9)	2,231(-5.3)	2,256(-1.7)
서비스·판매직	4,736(-2.7)	4,708(-3.5)	4,744(-3.9)	4,819(1.8)	4,748(-0.3)	4,764( 0.7)	4,861(2.3)	4,949(4.3)
농림어업직	2,364( 4.0)	2,591( 3.6)	2,217( 0.0)	2,217(-6.2)	1,744(-12.8)	2,433(-8.3)	2,461(-5.0)	2,232(0.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6,741(-12.5)	6,660(-13.9)	6,887(-11.1)	7,162(6.2)	6,632(-1.5)	7,138( 6.7)	7,306(9.7)	7,569(9.9)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1월.

도 지속적으로 5.0%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0.7% 증가하였다. 사무직과 농림어업직은 경기의 변동적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직종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의 경우 1998년 매 분기 증가추세였고 1999년에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4/4분기에는 1998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다.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1998년 매 분기별 취업자수가 직종별로 가장 크게 감소해 왔으나 1999년 1/4분기(-1.5%)를 정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어 취업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3/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9.7%가 증가하던 4/4분기에는 9.9%가 증가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기술직과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IMF 이후 경기회복과정에 가장 필요한 인력인 것으로 해석되며,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직업적 변화 양상과 증가 및 감소의 추세를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에서 비임금근로자는 1999년 2/4분기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오다가 3/4분기를 기점으로 하여 증가추세로 돌아서 4/4분기에는 1998년 동기에 비해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4 참조). 이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998년 매 분기 증가세였던 것이 1999년 들어 급격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감소율은 3/4분기에는 0.5% 정도로 완화되어 회복세를 보이다가 4/4분기에는 1998년 동기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자영업주는 1999년 1/4분기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3/4분기에 서는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임금근로자는 1/4분기에 3.8% 감소추세를 보이고 3/4분기에는 1.8% 증가세로 반전하기 시작하여 4/4 분기에는 2.6%가 되었다. 상용근로자의 감소 추세는 1.1%로 둔화되어 가는 형편이다. 일용근로자는 급격한 증가세를 타고 4/4분기에는 2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은 임금근로자의 불완전 고용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용

표 4. 중시직자 취업률(%)

(단위 : 천명, %)

구 분	1998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임금근로자	7,804(-1.0)	7,998(-1.6)	7,752(-1.4)	7,759(-0.6)	7,248(-2.6)	7,862(-2.0)	7,994(3.2)	7,930(2.3)
- 자영업주	5,776(-3.4)	5,859(-4.4)	5,837(-2.2)	5,841(1.1)	5,570(-0.1)	5,843(0.0)	5,963(1.8)	5,987(2.6)
- 무급가족종사자	2,028(6.8)	2,138(7.2)	1,915(1.2)	1,918(-5.4)	1,678(-10.5)	2,019(-7.5)	2,031(-0.5)	1,943(1.5)
임금근로자	12,191(-7.8)	12,051(-9.2)	12,172(-8.3)	12,522(2.7)	11,857(-3.8)	12,500(2.3)	12,701(5.4)	13,031(7.1)
- 상용	6,457(-9.7)	6,329(-10.4)	6,207(-10.6)	6,050(-6.3)	6,030(-10.9)	5,989(-8.2)	6,044(-4.5)	6,138(-1.1)
- 임시	3,998(-4.4)	3,952(-7.1)	4,005(-8.9)	4,183(4.6)	3,976(-1.1)	4,122(2.6)	4,227(7.0)	4,407(10.0)
- 일용	1,735(-8.3)	1,769(-9.8)	1,961(1.4)	2,289(31.9)	1,851(20.5)	2,389(42.5)	2,430(37.4)	2,486(26.8)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1월.

표 5. 연령별 실업률(%)

(단위 : 천명, %)

연 령	1998			1999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5-19	86(20.9)	90(21.9)	91(22.9)	85(19.7)	113(26.2)	84(20.9)	78(17.3)	67(15.1)
20-29	526(11.4)	548(11.9)	557(12.3)	452(10.2)	573(12.9)	465(10.5)	407(9.1)	367(8.2)
30-39	359(5.7)	411(6.5)	384(6.1)	328(5.3)	445(7.2)	360(5.8)	283(4.6)	223(3.6)
40-49	281(5.5)	315(6.2)	315(6.1)	276(5.2)	355(6.9)	297(5.6)	252(4.7)	198(3.6)
50-59	162(5.2)	184(5.8)	186(5.9)	162(5.1)	204(6.9)	178(5.6)	154(4.8)	114(3.5)
60세 이상	47(2.4)	49(2.4)	56(2.8)	49(2.4)	59(3.4)	50(2.3)	46(2.1)	42(2.0)

주 : ( )안은 실업률임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각 호: [경제활동인구월보], 2000년 1월.

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게 한다.

### 라. 연령별 실업자 추이

실업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9년 1/4분기에는 저연령층의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2/4분기, 3/4분기 및 4/4분기에는 감소하는 추

세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분기의 실업자 수의 변화 추이를 1998년 동기와 대비하여 보면 15~19세는 실업률이 15.1%(실업자 67천명), 20~29세는 8.2%(실업자 367천명)로 15~29세의 청년층이 기타의 연령층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의 지속은 경기침체로 인해 신규노동력의 고용흡수가 계속해서 제약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의 회복세로 청년층의 실업 증가 추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30~39세와 40~49세 연령층에서는 1999년

표 6 1999년 실업대책 총괄 실적

(단위: 억원, %, 천명)

구분	목표	예산 대비		누계인원대비		
		실적	비율	목표	실적	비율
합계	92,400	73,058	79.1	5,940	5,733	96.5
고용안정지원	4,832	2,092	43.3	827	667	80.7
단기 일자리 제공	26,218	22,179	84.6	1,345	1,546	114.9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6,868	6,200	90.3	364	364	100.0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2,587	78.2	3,404	3,156	92.7

자료: 노동부(2000), 2000년 종합 실업대책, 2000년 1월 11일

표 7 1999년 4/4분기 실업 실적

(단위: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11,000	7,100	1,500	1,200	1,200
인원	610	411*	77	61	61

\* : 1/4분기 411천명은 전년도 이월예산 2,000억원에 의한 5만명이 포함됨.

자료: 노동부(2000), 2000년 종합실업대책.

4/4분기 현재, 실업률이 각각 3.6%로 동일하며 점차 둔화되는 경향이다. 2000년의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할 때 연평균 실업률은 4.5%, 실업자수는 991천명으로 예상된다(노동부, 2000년 종합 실업대책, 2000. 1. 11). 경기회복의 속도에 대응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1999년 실업대책 총괄 실적

1999년의 산업대책은 종합실업대책(1999. 1.19)과 실업대책 강화방안(1999.3.22)에 따라 추진되었다. 1999-2000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02년에는 실업률을 4%로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 취업능력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9조 2,4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총사업비의 79.1%를 배정하여 집행하였고 수혜 목표인원 594만명의 96.5%(573만명)에게 수혜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수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중점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1일 평균 153천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지원을 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률이 가장 높은 1/4분기에 재원을 집중 운영하였다.

참고로 올해의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전체 예산을 99년과 비교하면 35.9%가 감소하였으며, 99년의 예산에서 실업자 생활안정비 중 생활보호비와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액만이 소액 증가하였으며, 다른 항목들은 모두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구 분	'99	2000	증 감	비 고
합계	92,400	59,220	△33,180	5.9% 감소
● 고용안정지원	4,832	3,663	△1,169	고용보험기금
● 단기일자리 제공	25,218	11,000	△14,218	
· 공공근로사업	24,924	11,000	△13,924	1일 153천명 투입
※ 대졸/고졸 인턴제	2,090	650	△1,440	22천명
· 보조교사 일자리	294	-	△294	사업 종료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868	4,305	△2,563	
· 실업자 직업훈련	5,692	3,416	△2,276	209천명
· 여성 실직자 훈련	140	93	△47	말하는 여성의 집 훈련(6천명)
· 취업알선 지원 등	1,036	796	△240	고용안정센터(122개소) 운영비, 상담원 인건비 등
● 실업자 생활안정	54,482	40,252	△14,230	
· 실업급여 지급	15,012	10,109	△4,903	380천명(고용보험기금)
· 가계안정자금 대부	11,382	5,092	△6,290	26천명
· 귀농·어 창업 지원	410	60	△350	100가구
· 기존 생활보호	14,884	17,090	2,206	116 → 116만명
· 한시적 생활보호 등 (실직노숙자 보호)	8,263 (132)	6,046 (122)	△2,217 (△10)	76 → 54만명
· 특별취로사업	1,500	1,000	△500	42천 가구
· 실직어선원 실업수당	215	27	△188	369명
·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2,000	-	△2,000	의무교육 차원에서 3,200억원 확보(40만명)
· 결식아동 중식지원	816	828	12	164천명
● 실업대책 예비비	1,000		△1,000	

자료: 노동부(2000), 2000년 종합실업대책.